

꼼꼼한 가채점 통해 수시·정시 전략적 지원 필요

‘포스트 수능’ 이것만은 챙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6일 끝나면서 대학 입시가 본격화됐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이날 공개된 수능 영역별 정답을 확인, 가채점을 통해 자신의 성적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현직 교사와 수도권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최상의 대입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 배제가 이뤄졌고, 역대급으로 많은 N수생들이 시험을 치른 만큼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재학생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가채점·영역별 예상등급 확인...모집 정원 점수 변화 체크해야=전문가들은 수능 가채점 결과가

‘역대급 N수생’...의대 모집 정원·점수 구조 변화 추이 분석 정시 집중 댄 모집 요강·영역별 점수 반영 비율 제대로 살펴야

향후 수능 지원전략을 수립·이행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된다고 입을 모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점수 발표 전까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수능 이후 의대 모집 정원 변화, 수험생 점수 구조 변화 등 정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해서도 체크하면서 흐름의 변화도 정확히 감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다음 달 8일 수능성적이 발표될 때까지 가채점 결과에 의한 영역별 원점수와 예상 등급을 기준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 가능한지 따져 보고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활용하는 대학에 지원한 경우가 채점 예상 등급을 기준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중

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파악한 이후 수시 전략을 세우면 된다. 가채점 결과 예상 점수가 낮아 정시에서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남은 수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능 예상성적이 잘 나오면 정시 지원이 유리하기 때문에 수시 지원 대학 가운데 앞으로 남은 수능고사나 면접고사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수능시험 이후 수능고사나 면접고사 시행 대학에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논술 또는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당장 18일부터 성균관대와 숭실대 등이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대학별로 기출문제와 예시문제를 통해 출제 유형

을 먼저 파악하고 준비하면 된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전년도 기출문제와 예시문제 등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다.

인문계 논술고사에 영어 지문을 출제하는 대학도 있다. 자연계 논술고사는 주로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시행하고 서술형 문제이다.

최근의 논술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다소 평이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주어진 논제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지망 대학의 출제 유형에 맞춰 직접 글을 써 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시도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 수능...유·불리 따져 전략적 지원=가채점 결과로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수시지원 대학보다 상위권 대학이라고 판단되면 대학별고사를 포기하고 정시모집에 집중하는 지원 전략을 짤 수도 있다.

우선 가채점 분석을 통해 예상 최고점과 최저점을 확인하고, 해당 구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 및 학과를 군별로 5개 이상 찾아야 한다. 이때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일지라도 적성에 맞지 않거나, 합격해도 꾸준히 공부할 의사가 없는 모집단위는 미리 제외하는 것이 좋다.

각 대학을 비롯한 올해 정시 관련 입시자료를 수집해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각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 게재된 ‘전년도 정시 입시결과’에는 학과별 합격자의 평균 수능 성적과 경쟁률, 충원율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 합격선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난해 모집요강과 올해 요강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전년도 대비 올해 영역별 반영비율, 모집인원, 선발군 이동 등 핵심 변화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큰 변동이 없다면 과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정적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올해 정시 지원 및 결과에 끼칠 영향까지도 함께 예측할 수 있다. 수많은 대학과 학과를 두고서 단 1점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정시 지원 포트폴리오의 밀거름을 만들어야 한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 주요 일정

23년 11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16~20일	문제 및 정답 이외신청
12월	8일	수능성적 통지
	15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18~21일	합격자 등록
	28일	미등록충원 합격 통보 마감
	29일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
24년 1월	3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시작
	6일	원서접수 마감
	9~16일	가군 전형기간
	17~24일	나군 전형기간
	25~2월1일	다군 전형기간
2월	6일	합격자 발표
	7~13일	합격자 등록
	20일	미등록충원 합격 통보 마감
	21일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

연립뉴스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시모집 지원 전략을 짰다면 원서접수 마감 일자와 시간 등 세부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잘못된 날짜나 시간 등으로 인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는 가군과 나군 다군 3번의 복수 지원 기회가 있는데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가군과 나군에 몰려 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가군과 나군의 대학 중에서 반드시 한 개 대학은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정시 원서접수는 대학별로 일정이 달라 자칫 다양한 변수들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포스트 수능’ 시기 방침은 금물이고,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한다.



시험 시작 전 마지막 점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린 광주시 북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전 마무리 점검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문가들의 수능 과목별 분석

킬러문항이 사라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이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어영역

EBS 평가단과 입시전문가들은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의 경우 소위 ‘킬러문항’이 배제됐으나 EBS 수능교재를 상당히 밀도 있게 연계하고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을 설계해 변별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변별력 높은 문항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전 영역에 걸쳐 출제됐다. 지문과 ‘보기’의 정보를 토대로 풀어야 하는 독서 10번 문항, 답과 내용이 작성된 글에 잘 반영됐는지 묻는 화법과 작문 40번 문항, 부사어의 다양한 쓰임을

국어, 전 영역 EBS 교재 연계 변별력 높여 영어, 종합적 사고력 문제 등 다소 까다로워 수학, 6·9월 모평과 비슷...다양한 난도 출제

묻는 언어와 매체 39번 문항은 난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도 “국어 공통과목 독서, 문학 모두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출제됐다”며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문법, 화법과 작문 선택과목도 어렵게 출제됐다”고 풀이했다. 문학 6개 작품 중 3개 작품 EBS 연계, 문학 작품 EBS와 연계됐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정답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영어영역

‘얼굴사인을 보고 표현된 감정을 인지하는 실험’을 소재로 한 빈칸 추론 33번 문항은 난제로 꼽혔다. 꼼꼼하게 지문을 읽고 선택지와 연결 짓는 종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키워드에 의존해 지문 내용을 이해한 경우 오답을 고르기 쉽다는 점에서 까다로웠다는 것이다.

33번 이외에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는 ‘괴담 관광’에 관한 내용을 읽고 제목을 추론해야 하는 24번 문항, 사람들이 거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지

문을 파악하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하는 34번이 꼽혔다. 집단 속에서 하나의 규범이 나타나게 되기까지 과정에 관한 글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37번, 오타자와 돌연변이의 영향력을 다룬 지문 사이에 제시된 문장을 적절하게 삽입하는 39번도 수험생들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수학영역

수학영역에 대해 EBS평가단은 “수학영역은 올해 치러진 6월과 9월의 모의평가와 구성면에서 매우 흡사하며 최상위권 학생들부터 중하위권 학생들까지 충분히 변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골고루 출제했다”고 분석했다.

공통과목 가운데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는 수열의 귀납적 정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열의 규칙성을 추론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첫째항을 모두 구하는 15번, 미분계수의 부호를 고려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수식을 구하는 22번이 꼽혔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마지막 문제인 주관식 30번이 상위권을 가를 문제로 분석됐다.

확률과 통계 30번은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해 확률을 계산하는 문항이었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도함수를 이용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성질을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었다. 기하 30번은 평면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 주어진 벡터의 크기가 최대인 점의 위치를 찾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항이었다.

종로학원은 “미적분, 기하 선택과목에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 반면 확률과 통계는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난도 높은 문제로는 공통과목 22번(주관식 4점, 미분), 미적분 28번(객관식 4점, 적분)을 꼽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당기를

이호동 글 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당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